

### 마. 방북안내교육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북한방문예정자들을 위해 방북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북안내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매주 2회(화·목) 실시하는 정례교육, 방북예정자 요청시 현지에서 출장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매일 출경전 실시하는 영상교육, 그리고 2009년부터 시행되는 사이버방북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2008년도에 방북안내교육을 받은 인원은 총 2만 4,685명으로서, 1만 9,005명이 정례교육을, 1,684명이 특별교육을, 3,996명이 영상교육을 받았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방북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인천·경남·전남 등의 지역을 방문하여 방북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08년도에는 통일교육원 정례교육에 참석하는 방북예정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조정하여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한 관광객 신변안전 강화를 위해 북한지역 체류시 언행 등 유의사항 중심으로 영상물을 제작·보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회 및 학교 통일교육, 공무원 통일교육, 방북안내교육 등 초청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통일부는 2008년도에 교수역량 강화 및 교육생의 편의 보장 등에 주력하였다.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실시해오던 교수성과 평가제도를 더 강화하고, 전문가 초청 교수단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통일문제·북한 이해·통일환경·인도적 현안·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

문가들을 객원교수로 위촉하였다.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서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mail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교육과정을 안내하였다.

### 3. 사이버 통일교육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uniedu.go.kr>)는 2000년 10월 13일에 처음 개통되었으며, 이듬해 3월 통일교육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이버통일교육팀(2004. 1 '사이버교육과'로 변경)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사이버 통일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및 사이버통일교육 관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2008년 통일교육과정명 개편」에 따라 홈페이지 명칭을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서 「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고 화면을 재구성하는 등 2009년 1월 30일부터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 가. 교원·공무원 대상 사이버 통일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사이버통일교육 직무연수는 2003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으로 「원격교육연수원」 기관인가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2004년 4월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점인정 등

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기과정 30시간에 2학점을 인정받았으며, 2006년 2월에는 장기과정 60시간 4학점을 인가 받았다.

2008년 사이버통일교육 직무연수는 전국 총 16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장기과정 6기, 단기과정 7기 등 총 2,000명 교육계획에 3,042명이 이수를 하여 목표대비 150%를 달성하였다. 단기과정은 30시간 2학점으로 총 10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과정은 60시간 4학점으로 총 1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과정별 교육과목중 1개 과목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통일교육 내용 및 수준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하였다.

장기과정은 온라인 과정과 병행하여 집합교육 및 출석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석시험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이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집합교육시에는 북한의 실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및 각종 특강(상생공영정책의 이해 등)을 실시하였다.



교원사이버 통일교육 화면(<http://lms.uniedu.go.kr>)

온라인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단기 수료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분단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였다. 2008년도에는 총 6회에 걸쳐 판문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남북출입사무소, 전방부대 등을 방문하였다. 2009년도에는 현장체험학습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현장체험학습 장소 또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 등 북한현지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 대상 사이버통일교육은 2007년 9월에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공무원대상 원격통일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정받아, 2007년도에 시범실시를 한 후 2008년부터 본격 실시되었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기수씩 총 9기를 운영하였다. 수강과목은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의 정치경제」, 「북한의 사회문화」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65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사이버통일교육을 이수하는 공무원에 대해 상시 학습 11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사이버통일교육 화면(<http://cyber.uniedu.go.kr>)

## 나. 사이버 방북안내교육

그동안 방북예정자들은 3~4시간 방북교육을 받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음에 따라, 2008년 5월 23일 이명박 정부의 「국민생활불편해소 100개 과제」에 '방북교육의 사이버방북교육으로의 전환'이 선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방북예정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이버방북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전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2009년도 1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이버 방북안내교육 화면(<http://cvg.uniedu.go.kr>)

## 다.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유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통일의를 함양하고자 「사이버통일교육용 게임」을 개발하여 2008년 11월 17일에서 20일까지 4일간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2,031명이 참여하여 16명이 입상하였다.



사이버통일교육용 게임 '한라에서 백두까지' (<http://www.uniedu.go.kr>)

이 게임은 3,000개의 DVD로 제작되어 이벤트에 참여한 초등학교 및 사이버통일교육 성적우수 교원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등에 배포하고, 전국 각 초등학교에 1일 통일교사로 가는 통일부직원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통일교육 과목의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외부강사가 참여하여 사이버통일교육 콘텐츠의 내용과 과목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상생공영 3D 애니메이션」,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현실」, 「북한문화재 이해」, 「독일통일의 교훈」, 「퀴즈게임」 등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북한의 대남전략」도 신설되었다. 개편된 내용은 2009년 학습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인터넷 잡지 성격의 통일교육 웹진 「유니진」을 2005년 1월부터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처음으로 2008년 발행된 웹진(제36호부터 제47호까지)을 묶어 책자로 발간하였다.

## 2008년도 사이버통일교육 자료

자 료 명	제작연월	비 고
'사이버통일교육' 으로의 초대	2008.7	책자
'한라' 에서 '백두' 까지(초등학생용 게임)	2008.12	DVD
2008 통일교육 웹진 「유니진」	2008.12	웹진, 책자

## 4. 통일교육 지원

통일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통일교육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학교통일교육과 더불어 사회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협의회,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 가. 학교통일교육 지원

통일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청소년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 18개 초·중·고등학교를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였다. 2008년 11월 25일에는 시범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하여 통일교육 교사들의 우수한 교육 사례와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자들에게 통일부 장관상 및 통일교육원장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전국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서울 및 전국 각 시·도 지역의 학교에 골고루 통일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08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발표회(2008.11.25)

청소년 세대로 하여금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1996년 이래 통일부가 주최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 지역 통일관이 주관하는 「전국학생 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전국 총 5,830개 학교에서 100만 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총 144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